

# 농어업수도 비전 수립 통해 해남의 미래가치 키울 것

자치CEO

명현관  
해남군수



2025년 을사년 새해에는 '농어촌수도 해남'을 이루는 게 목표입니다. 전국 최대 경지 면적과 청정 땅끝바다를 자랑하는 농어업 선도 지자체다운 위상을 만들어 대내·외에 농어업 1번지라는 자긍심을 알리나가겠습니다.

농어업은 해남의 주력산업으로서 선도적인 농어업인이 조화를 이뤄 대한민국의 식량안보와 국민들의 안전 먹거리를 책임지는게 1차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와 농업연구단지를 핵심거점으로 수산기자재클러스터와 김치원료공급단지, 탄소중립 에듀센터,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등 주요사업들을 적기에 차질없이 추진하여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미래 산업으로서 농어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갈 방침입니다.

쌀과 배추, 고구마, 김 등 4대 농수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특화사업의 체계적 발굴, 고부가가치·고소득의 농수산업 기반 구축, 안전 먹거리 가공 및 온·오프라인 유통 개선, 체험·관광을 결합한 융복합화로 지속가능한 미래 농어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여촌

신활력증진사업, 김 산업 진흥구역 조성, 육상 양식 시범실시, 서남해안 섬벨트 사업 등 여촌 개발,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활력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매년 군 재정의 30% 이상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림해양수산분야 사업을 포함하여 14개 읍·면에서 균형있게 펼쳐지고 있는 지역개발사업, 각종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의 노력으로 활력있는 농어촌의 성장에 힘을 보탬 계획입니다.

농어업수도는 하루아침에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미래세대와 해남발전의 장기 비전을 바라보고 끈기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당장 어렵다고 회피하기 보다는 군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꾸준히 기반을 쌓아나가겠다는 게 군의 목표입니다.

또한 농어촌수도 비전과 더불어 5대 핵심 역점사업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장기성장동력 육성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등 양대특구와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2단계 공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입니다.

두 번째로는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활성화 추진으로 올해 해남군의 예산은 전년 대비 148억원이 증가한 8973억원을 편성하여 전국 군단위 최대 규모 예산, 전국 1위 집행률의 위상에 걸맞게 속도감 있는 예산 운영으로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으려 합니다.

세 번째는 땅끝과 두륜산, 해남읍, 우수영 등 특색있는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고 해남위케이션 센터 조성, 강해영 프로젝트 등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을 확대하고 해남 전역을 정원 도시로 조성하는 사업과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네 번째는 전 군민이 안전한 해남, 온정있는 군민 복지 확산을 위하여 출생기본수당을 연결고리로 기본소득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고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비롯한 위기가구를 사전에 발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약속과 신뢰의 청정행정, 더 깨끗하고,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한 해남형 ESG 확산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의 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저는 2025년이 역풍장범(逆風張帆), 맞바람 속에서도 활짝 돛을 펼치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빛나는 해남, 살맛나는 해남, 으뜸해남!'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움 속에서도 역대 최대의 균형성과를 거두며, 멈추지 않고 달려왔던 성공의 경험도 풍부합니다.

차분한 용기와 재생의 에너지를 가진 뱀의 지혜를 빌려 슬기로운 도약과 새로운 출발로 해남만의 해결책을 찾아가겠습니다.



세상읽기 | 한정규 문학평론가

## 행운도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온다

행운이 찾아 온 것 순서나 방법이 따로 없이 때와 장소, 하는 일, 사람 등에 따라 다르다. 중요한 것은 보다 큰 행운일수록 소리 소문 없이 다닌다는 점이다. 그리고 크고 작은 고통을 수반한다는 점이다.

또한 행운이 언제 오고간 줄 모르게 왔다 가버린다. 지나간 뒤에야 그때 그것이 기회였는데 그 행운도 기회도 모르고 지나쳐 버렸으니 하며 뒤늦게 한숨을 쉬며 후회를 한다.

보통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다. 그리고 서야 어떻게 하면 백만장자, 보다 높은 벼슬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

그 답은 복잡다양하다. 정답이 따로 없다. 다만 성실한 생활이 중요하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다. 또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한마디로 좋은 인성에 근면성실해야 한다. 행운이 그런 사람을 좋아 한다. 행운은 누구에게나 가지도 오지도 않는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 시기질투나 하며 터무니없는 욕심만 내는 그런 사람은 행운이 좋아하지 않는다.

행운도 들고 보고 그래서 좋은 것 나쁜 것 가리며 다닌다. 열심히 무엇인가 하겠다는, 하는 사람과만 가까이 한다. 행운과 친하고 싶으면 좋은 생각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실천해야 한다.

행운, 기회다 생각되면 꼭 붙잡아야 한다. 누구에게나 평생 세 번의 기회, 행운이 온다 한다. 그 세 번 중 큰 행운 한번, 중간 행운 한번, 작은 행운 한번 그렇게 3

번의 행운이 있다 한다.

그 중 어느 것이 먼저 올 줄 그것은 모른다. 3번의 행운 그 중 하나도 잡지 못하고 모두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한 번도 잡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선 안 된다.

그것 조상 탓도, 부모 탓도, 그 누구의 탓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의 몫이다. 분명한 것은 행운이 근면 성실한 사람을 좋아 한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행운이 찾아오기 전에 고통으로 행운을 맞아 줄 준비가 됐는지? 실험을 해 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고통을 겪지 않은 행운은 있을 수 없다.

고통이 가슴에 파고들어 수시로 뺨을 때리기도, 머리를 쥐어짜기도, 몸 여기저기를 꼬집어보기도, 할퀴기도, 한다.

그리고 있어야 할지, 다른 사람에게 옮겨 가야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행운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싶으면 소리 소문 없이 떠나 버린다.

반면 행운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 싶으면 무엇인가를 결정토록 하며 그 부분에 정신적인 투자와 물질적인 투자를 준비토록 하고 지원을 시작한다.

행운이 앞장 서 적극 주도 한다. 그런 행운을 놓쳐서는 안 된다.

연제 행운이 찾아 올 줄 모르니 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다 생각되면 혼신의 노력으로 움켜잡아야 한다.

이 글을 접하는 순간 무엇인가를 생각해 된다면 이 또한 당신에게는 큰 행운이 될 수도 있다. 아니 분명 큰 행운이다.

### 독자투고

올해 설 연휴에는 3484만명의 많은 귀성·귀객·여행객들이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고향 등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즐거운 고향방문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은 우선되어야 한다. 명절기간 화목한 친지, 가족들 간의 시간을 보내는 첫걸음이다.

운전자는 물론 동승한 가족들 모두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은 의무다. 혹시 사고가 발생해도 안전띠를 착용한 경우에는 사망률을 3배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출발 전에는 반드시

### 설 명절 귀성길 안전운전 하자

타이어 공기압, 냉각수, 엔진오일, 점화플러그, 변속기 오일, 라이닝, 변속기 작동 이상유무, 전조등, 방향지시등 작동유무 등 차량 점검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운전자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물이다. 이것은 절대 위험하다. 전화사용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고 운전해야 하며 운전중 졸음이 오면 반드시 휴게소나 졸음운전 쉼터 등 안전한 곳에 정차하고 맨손체조 등을 하고 건과류 등을 섭취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급출발, 급제동, 급차선 변경, 과속 금지해야 하고 감기약 등 약물을 복용 후 운전 금지도 필수다. 교통안전 수칙을 통해 이번 설명절 연휴 귀성길 등 대형사고 발생하지 않아 행복함이 가득한 고향방문이 되기를 기원한다.

진병진 <여수경찰 대경도치안센터 경감>



###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 1인당 쌀 소비량 추이



# 보약·홍삼은

## 40년 오직 한 길!

# 북교당 한약방

###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